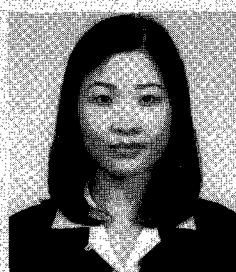


메리알 칼럼

호흡기 질병



소 현희
메리알코리아 수의사

불 량한 환기, 냉기, 높은 수준의 먼지와 습기, 높은 온도, 건조 불량한 영양상태 (예를 들어, 호흡기계의 점막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타민A의 불충분), 그리고 사료내 마이코톡신이 호흡기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인자들이며, 좋은 환기, 올바

른 투약과 백신접종 등이 질병을 경감시키는 인자들이다.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호흡기 질병을 악화시키는 인자들을 최소화하고, 경감 인자들을 최대화해야 한다. 과도한 암모니아 가스 먼지, 건조,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 뉴캐슬병 바이러스 등은 닭 기관내의 섬모운동을 정지시키고 기관 상피세포를 손상시킨다.

대부분의 국내 양계장은 마이코플라즈마와 대장균에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닭의 기관이 손상되면 세균과 마이코플라즈마에 쉽게 감염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것이다.

물론, 닭의 기관이 정상적일 때에는 대장균이나 마이코플라즈마가 기관 상피세포를 뚫고 체내로 침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닭의 호흡기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환절기 관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닭의 호흡기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환기 및 적절한 온·습도 관리에 의한 쾌적한 계사 환경이며, 만약 IB, ND 등의 질병적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사양관리에 의해서 호흡기질병을 호전 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에 어린 병아리에 약간의 호흡기 증세가 있을 때, 계사내 온도를 약간 올려주고, 쾌적한 계사환경을 유지시켜 준다면, 호흡기 증상이 호전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질병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질병적 요인 중 세균과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처치는 항균, 항생제의 올바른 투약과 적절한 투약시기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픈 닭은 사료를 잘 먹지 않고 물 섭취량은 어느 정도 유지 또는 증가하므로, 만약 닭에 질병이 발생하여 항생, 항균제 처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료첨가보다 음수투여가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음수 투여는 하루 종일 먹는 물에 약한 수준의 약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닭이 2~3시간 동안 먹을 물량에 약물을 공급하여 치료수준의 약물을 농도를 낮춰 체내에 유지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만성적으로 질병이 유지될 때에는 사료첨가를 권장하기도 한다.

호흡기도에 영향을 주는 질병적 요인으로서 전염성 기관지염(IB), 뉴캣슬병(ND) 등이 있는데, 뉴캣슬병은 항원성이 동일하여 백신만 잘 한다면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IB는 항원성이 동일하지 않고 쉽게 변이 되기도 하므로 백신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

만성적으로 호흡기 질병이 문제되는 지역에서 IB를 의심하여 가검물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자연 감염된 IB바이러스는 일정기간동안만 감염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검물 의뢰시기에 따라, IB바이러스에 야외 감염된 계군에서 IB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IB가 의심되는 가검물을 의뢰하였을 때, IB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아 IB판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IB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기 질병을 유도하면서도 대장균



증처럼 병변이 눈에 두두리지지 않는 IB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이나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므로, 백신과 함께 소독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IB 발생이 의심되어지는 지역에서는 마지막 생독 백신이 끝난 35일 후부터 질병발생이 우려되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음수 소독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수 소독제는 물을 소독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독효과가 IB바이러스가 초기 안착하는, 인후두 부분까지 미치므로 IB바이러스를 일부 살멸시킬 수 있다.

음수소독을 실시하면 장내 미생물총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필드에서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독효과는 주로 호흡기도 까지만 미치며, 장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호흡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계사 환경과 백신접종, 소독과 적절한 투약이 조화를 이루어 실시되어져야 한다. 양계